

##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성종(윤현영), 공인석(김명숙), 김길자, 김순석(임영득), 김외자(류승우), 김지한, 김춘화, 문영원(이영희), 박은숙, 방석태(차옥자), 석형기(이희순), 송부현(김영진), 윤정호(유옥자), 이복현, 이창구(곽경순), 이호준(안금자), 임만순(서영숙), 장영원(김옥자), 정영심, 재희윤(황영옥), 탁성주.(총21명)

📍 **선교헌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공인석(김명숙), 김길자, 김순석(임영득), 문영원(이영희), 박영순, 방현욱(신영신), 김현구(서희희), 송다혜, 송부현(김영남), 안금자, 윤정호(유옥자), 이상학, 장영원(김옥자), 정영심, 무명, 베드로남전도회.(총16명)

📍 **감사헌금**

이진우, 윤희진(최유경), 이송이, 김규찬(최호자), 김길자, 김병율(이영숙), 김순옥, 박희영, 배병찬, 백경자, 송백현, 신현진, 신지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도혜, 이슬아, 이옥남, 이민숙, 정옥순, 주성탁, 최귀남, 최봉순, 최선미, 황영옥, 무명.(총34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이필례, 김민성, 김민혁, 김수현, 김정훈, 김준현, 김지훈, 김춘화, 민옥희, 박은숙, 박희영, 배병찬, 백경자, 송백현, 신현진, 신지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도혜, 이슬아, 이옥남, 이민숙, 정옥순, 주성탁, 최귀남, 최봉순, 최선미, 황영옥, 무명.(총34명)

📍 **월정헌금**

최순재.(총1명)

## 주간 성경연구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제47주: 잠언 20장 1절 - 23장 35절			
주 일	잠언 20장 1 - 14절		
월요일	잠언 20장 15 - 30절	목요일	잠언 22장 1 - 29절
화요일	잠언 21장 1 - 14절	금요일	잠언 23장 1 - 16절
수요일	잠언 21장 15 - 31절	토요일	잠언 23장 17 - 35절

원로장로	이태일		
시무장로	정기성 윤조준 방석태 윤병호 강영선 김병율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퇴장로	오만식 방현옥 장영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이일로 천세혁		
교역자	부목사	윤희진 김성종	
	전도사	이필례	
	교육전도사	문수경 이송이 최유경	
찬양대	지휘자	할렐루야 : 김한나 시온·예덴 : 최원지	호산나 : 김한나 엘렐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해윤
		피아노	강민주 김미희 김상훈 유광희 이주하 정해지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룙	김민지
선교사	솔리스트	김안나 박선희 고광훈	
	파송선교사	태국: 김정숙 수리남: 안석렬 이성옥 미국: 김다니엘 미국: 최옥희	이집트: 김진숙 A X 국: 김해월 A X 국: 이분옥 A X 국: 박동권 김영화
		태국: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김홍기	A 국: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동포시활화 동정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오픈도어선교회		

2015. 11. 15 주일 예배 설교

### 환란 중의 감사

본문: 시편 30편 1-5절

설교: 이진우 목사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로써 제목이 “성전 낙성가”입니다. 칼빈은 암살범에게 짓밟혔던 궁전을 되찾은 후,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롭게 봉헌 하는 뜻에서 지어 부른 노래라 했습니다. 사실, 암살범의 반역은 다윗의 일생 중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일생 최대의 고난을 극복한 후, 그 궁전으로 다시 돌아와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깊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이 이 환란 중에 감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 원수의 손에서 그리고 스울에서 끌어내어 주셨음을 감사했습니다.

1) 본문 1절에 “끌어내사”라는 히브리어는 “덜라”로서, “깊은 우물물을 두레박으로 끌어올 때 쓰는 말”입니다. 원수에게 완전히 우겨 쏘여 살아남을 가능성 없는, 절망의 우물에 깊이 빠져 헤어 나지 못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내어 구원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2) 또 본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육체를 원수의 수중에서 끌어내 살려 주셨고, 영혼을 깊은 죄악의 구렁이, 실패와 낭패, 괴로움과 실망의 구렁이에서 끌어 올리셔서 구원해 주시며, 완전한 매장되는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불장아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환란 중에서도 다윗은 낙심치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3) 오늘 우리들도 쟁게는 지난 일 년 동안, 길게는 한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스울 같은 절망과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무덤에 매장되는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 위해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을 친히 짊어지시기 위해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가난과 절망과 죽음과 사탄과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케 해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기도를 응답해 주셨음을 감사 했습니다.

1) 본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 더욱 정신 차려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의 말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 그날이 올 때, 마음의 눈을 높이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2) 다윗은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기 “부르짖어”란 슬피 울며 부르짖어 기도함을 가르칩니다. 즉, 깊은 회개의 기도를 뜻 합니다. 또 쉬지 않고 계속적인 기도를 뜻합니다. 더 나아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쏟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라 기도했습니다. 이는 겸손한 기도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3) 다윗의 기도는 응답 되었습니다. 고치시고,(2절) 음부에서 끌어내어,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3절),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배뿔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 띠워 주셨습니다.(11절).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 이니라(마 7:8).”하셨고, 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하셨습니다.

3.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영원함을 감사했습니다.

1) 성도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채찍을 들어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라 했습니다. 다윗은 형통함이 하나님의 축복인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당연한 결과로 보았습니다. 때문에 스스로의 힘과 재능으로 영영히 요동치 않을 것이라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한 교만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이 교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깎기 위해서 큰 재난과 환란을 일으키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2) 우리는 시편의 기자를 통해 환란과 징계의 채찍을 통해 큰 감사의 조건을 발견합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 “잠깐”이란 히브리어 “키 레기 빼에포”로서 눈 깜짝할 사이를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는 영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평생을 돌아볼 때, 질병의 날보다 건강한 날이 더 많고, 재앙의 날보다 평안한 날이 더 많으며, 고통의 시간보다는 즐거운 시간이 더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행복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고통의 순간만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병입니다. 스플전은 “우리 인생에는 끝갈이 단 것이 필요 할뿐 아니라, 약갈이 쓴 것도 필요합니다.”라 했습니다. 병들었을 때에는 단 꿀 보다는 쓴 약이 더 필요합니다.  
3) 우리들도 환란과 고난 중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 앞에 닥쳐오는 고난은 더 큰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1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큰 환란 중에서도 감사했던 다윗의 감사를 본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오늘 여기 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 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SINCE 1975

No. 41 - 47

2015. 11. 22

## 대한예수교장로회

# 성현교회

##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시편 80편 7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이진우
Senior Pastor	Yee,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